

양계농장 종업원구인난 왜, 발생하고 있는가!



일시 : 1988년 5월 19일(목)
오후 2시

장소 : 본회 회의실

참석자 :

- 성열국(천광산업 관리이사)
- 송상정(아람농장 대표·본지편집위원)
- 이창진(다나축산기계 영업부장)
- 최현규(천호부화장 영업부장)
- 한 회(풍한농장 대표)

사회 : 노영한

정리 : 권동원(본지기자)

사회 : 최근들어 모든 산업이 인력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이 확대되는 등 산업전체의 흐름이 인력수급계획에 어려운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어, 노동문제가 상당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계장의 경우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사람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전대비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리라 봅니다. 먼저 양계장의 인력난 현황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정 : 저희 농장은 종업원 5명

이 일해 왔는데 지난 2월 2명이 나가고 현재는 3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분처리시설만 기계화가 되어 있고 그외는 모두 수작업으로 일을 하는데 1명이 12,000수 정도를 관리하게 되어 있어 자연히 일이 많아지게 되는데 불평이 따르게 됩니다. 구인난이 짧은 기간이면 다른 종업원들도 받아 주겠지만 공백기간이 장기화되자 일하기 힘들어해 직업소개소에까지 가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양계장에 오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기계를

설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주문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기계업체도 양계장과 마찬가지로 인력난 때문에 주문을 받고도 제때에 설치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계장에 남은 인력이 없느냐 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있는 수원지역에서는 직업소개에서 살다시피해도 양계장에 가겠다는 사람이 없을만큼 인력구난이 심각합니다.

한 회 : 저희 목장에서는 소 80두와 산란계 7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남자 10명, 여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0년이상 오래된 사람도 많아 그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주고 있지만 인력을 도울 수 있는 기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크레퍼가 완비되어 있고 급이시스템도 2동이 호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들이 아직은 문제점이 많아 더 발주하고 싶은데 지금 값비싸게 투자한 기계가 후에 고철이 될까 염려되어 실용성이 있는 기계가 언제쯤 나올까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노동, 장래비전 등 문제로 농장 기피

성열국 : 저희는 주식회사라 개인 양계장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지만 오히려 인력관리에 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임금에는 직접임금과 간접임금이 있는데 법인화가 된 곳에서는 간접 임금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때 받는 임금이 많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업종과 형평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어렵습니다.

사회 : 그러면 양계장에 구인난이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 회 : 농장에서는 직원의 직급이



성 열 국

종업원의
이직율이
높은 곳은
품질이
좋지 못하다.

분류되어 있지 않아 승진의 기회도 없는 단순노동으로 아무리 일해도 장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점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 수출산업과 같은 타산업은 국제경쟁력이 있고 수익성이 있어 인력이 부족하면 임금을 올려주는데 우리 농축산분야의 여건에서는 그쪽 수준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원인이 되겠지요.

최현규 : 저는 이직 이유를 첫째, 대우문제에 대한 불만 둘째, 장래성에 대한 문제 셋째, 직업의식과 자기관족감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 구조가 문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0여년전에 농장장을 했었는데 그때의 인력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때는 친구나, 자제내에서 우수인력을 구했는데 지금은 소개소, 계우회를 통해서 구하다 보니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 일하는 시간

도 줄었습니다. 또한 부동산투기, 복권 등의 영향을받아 사회가 한탕주의 풍조가 팽배하여 시골에 눌러 있지 못하게 되었으며, 노사분규 역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전례로 보아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서는 경제구조상 겪고 넘어갈 흐름인 것 같은데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에 반하여 양계장이 미처 문제에 대응하는 준비를 못했을 뿐입니다.

양계기계제작사도 구인난으로 어려움

이창진 : 우리회사의 경우에도 작년엔 상당히 많은 기계설비 주문을 받았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 10여명을 보충하려고 신문광고를 내어도 사람이 없어서 주문을 받고도 2달씩 밀리면서 일해 왔습니다.

양계장에 종업원이 부족한 이유중 하나는 양계장이 시골에 있어 교통·취학 등의 문제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없는 답답함이 사실은 있습니다. 또한 임금이 적다는 점도 있지만 같은 임금수준이면 도시에 있는 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굳이 계분냄새를 맡지않고, 사료먼지를 쓰지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영주도 이제는 임금도 다시 생각을 해야 하고 의료보험, 상여금제도 등 종업원 복지를 활성화하여 대우를 개선하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 축산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국의 압력대로 환율이 급속히 절상되면 수출산업의 위축으로 국내경기는 침체되어 특히 1차산업은 급속히 쇠퇴할 우려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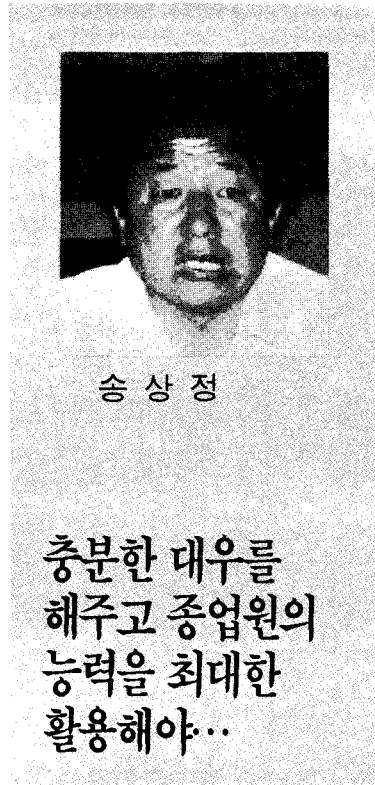
인력난이 오는 것은 3차산업이 비정상적으로 발전하여 1차산업 처럼 힘들이지 않고 일하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자꾸 3차산업쪽으로 옮겨 가게 됩니다.

일본을 보면 사람구하기가 힘들어 지나가 인력을 일정량 고용한 용역회사가 생겨 양계장에서는 용역회사에 맡기어 사료만 준다든가, 관리를 맡아 해준다든가 하여 용역회사를 통한 인력수급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계분장사가 그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양계장에서는 지출이 조금 많아도 안심할 수 있고 인력관리에 걱정이 없는데 이런 사업도 우리가 앞으로는 검토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희 : 종업원 문제는 사회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양계인만이 모여서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타개책은 자동화 밖에 없는데 그 기회를 80년대 초반에 이미 놓쳤습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원시적이나 다름없고 기계화에 대한 국내 기술축적도 이루어지지 않아 기자재 만드는 사람조차도 이론정립이 부족하여 농장에서 어떤 모델을 설치해야 좋을런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 같아 더욱 기계화를 주저하게 됩니다.

또 정부당국의 정책적인 면도 영향이 큼니다. 장려하는 쪽보다 억제하는 쪽으로 나갔는데 산물가격이 안정되지도 못했으며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규제는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사회에만 자율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양계산업에도 자율화가 필요한데 유독 양계산업만 규제일변도로 나가 산업이 발전하는데 저해되는 정책적 해결문제가 급합니다.

얼마전 미국 양계산업을 견학하고 느낌점은 소형계사로는 자동화가 힘



들어 우리나라의 기존계사로는 불가능하여 계사시설 변경작업부터 해야 하는데 계사변경작업을 시도하려해도 형질변경 등 어려움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배려와 기자재 업자도 어떤 종류의 기계가 우수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동화시설 도입이 해결책

송상정 : 개인적으로는 인력관리에 남보다 신경을 써서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대통령, 국회의원의 양대선거와 노사분규가 종업원 구인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심지어 종업원 2명이 있는 농장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났습니다. 종업원이 2명이란 의미는 조직사회라고 보기 어려운 인간관계 사회인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종업

원의 내재적인 불만이 쌓여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문제, 후생복지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남아하니까 나도한다는 식으로 치달아 산업자세가 점점 어려워져가지만 그렇다고 전혀 살길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분야는 위험부담이 있는 반면 많은 이득이 따르는데 양계는 소득보장이 없이 금년처럼 장기간 저난가에 허덕여 당장 호구지책에 바쁘고 존립자체도 어려운데 종업원 난도 큰 일이지만 이것은 2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당위성에서 방법론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종업원 난을 우선 해소하려면 자동화를 해야 하는데 소득의 분기점이 어디냐에 따라 양계산업에 투자하느냐, 다른 산업에 투자할 것이냐의 투자선택면에서 기로에서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사람도 있는데 투자금액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어 투자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소신, 인생관이 부합되어 투자했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양계장은 방황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계시설로 들어갈 것이냐 다른사업으로 전향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용기와 자신과 희망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변혁의 물결에 적응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쟁에서 탈락이 될 것 입니다.

사회 : 지금까지 저임금, 후생복지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산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인데 양계장에서 종업원이 오래 근무하지 않아 사실상 이익분배는 어렵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 자본쪽에는 관심을 갖고 노동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 노사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큰 기업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열국 :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저희 종업원 중에 배워서 양계하겠다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종업원들도 직업의식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양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 이들이 한 농장에 오래근무하지 않고 계속 옮겨다니는데 제 경험으로는 종업원의 이직율이 높은 곳은 결코 품질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직율이 높으면 품질에 대하여 신뢰성을 갖지 못합니다. 급여인상방법도 있겠지만 종업원들을 진정으로 생각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서산의 한 원예농장에서는 이직이 전혀 없습니다. 경영을 완전히 공개하여 1년에 한번씩 배분도 하여 밤에 비가 온다면 10리 밖에서도 종업원들이 쫓아옵니다.

양계장에서 근로조건을 개선해주는 것은 거의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인건비를 올려주면 계란값도 올려야 하는데 요즘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계란값을 올려서는 판매가 불가능 하거든요.

임금을 많이 주는 쪽도 중요하지만 종업원 관리를 잘하는 쪽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 농장이 아산에 있는데 주위에 다방, 술집 당구장 등 유흥업소가 많아 이들을 농장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됩니다.

사회변천과정 역행은 낙오자 될 수 있어

송상정 :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유흥업소가 문제입니다. 그사람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하지만 자기가 맡은 바 업무를 철저하게 마



이 창 진

고가인 축산기계도 농기계처럼 분할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친다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양계장에서 9시간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9시간을 종업원이 잘 활용하여 근무시간 내에만 성실히 일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양계업을 해서 걱정만 이윤이 남게만 된다면 최대한 월급을 많이주고 대신 종업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좋겠지요.

또한 기업처럼 얼마후면 승진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사회에서 임금수준이 합당하느냐도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얼마전 계분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하고 어려운 직업중의 하나가 닭똥치는 직업인데 기본급에 한차당 상차비용을 주어 능력별로 한달에 70

~120만원 정도를 받게되어 출퇴근 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직업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약 조건에서도 높은 임금이 좋아 사람이 모여들고 떠나지도 않는데 양계장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면서도 종업원이 들어와 한달 채우기도 어려워 생산성이나 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어 눈에 보이지 않은 막대한 손실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양계업자는 바보스럽다고 질책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한 희: 모든 사회 변천과정에서 역행하려고하면 안됩니다. 너무 빨리 변해도 안되지만 양계업자들은 변천에 쫓아가려는 의지도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1인당 관리수수가 5,000수 정도를 추정하는데 외국처럼 자동화하여 일본 2만수, 미국 5만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임금도 50~80만원 줄 수 있고 또 그 역력으로 후생복지 시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양계업자는 기술개발 의지는 전혀 없고 난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문제입니다. 경기는 싸이클이 있습니다. 기술개발 의지가 없고 경영이 부실한 사람은 점점 어려워 질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개발 의지와 기술개발 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으면 임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양계산업 존립 자체가 위협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계 전문 인력 고용 용역회사 설립도 머지않아

최현규 :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해야할 일과 장기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문제는 이미 확보된 인력을 어떻게 하면 타산업에 빼앗기지 않는냐는 대우개선 문제, 두당관리수 늘

리는 문제, 인간적관계 문제 등이 있지만 거기에 더 종업원이 “나도 이농장에서 뭐다”라는 식의 의식을 갖게할 수 있는 문제와 종업원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일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를들어 산란계농장은 육성율, 산란율, 파란율 등과 육계농장은 생존율, 사료요구율 등 돈하고 직접관계되는 부분에 평가점수를 매겨서 고정급+ α 를 해주어 본인 스스로가 이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하에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쓰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합니다.

장기적으로 농장 나름대로 적정사육 규모를 빨리 찾아야 되겠고, 전문인력확보 문제는 용역회사가 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타산업처럼 직업훈련소 같은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고인력 쪽으로 사람을 바꾸어나가 축산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또 큰 회사의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업체나 생산직 보다는 관리직이 대우가 좋은 편인데 저희 회사 경우는 얼마전부터 생산직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농어촌부채탕감이나 자금지원 등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어떻게하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외국에 좋은 기계가 있다면 관세의 혜택을 주어 우리 양계가 외국과의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제도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양돈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계설비 도입문제는 기계가 사람 5명 몫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최 현 규

정부의 지원도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자리에서 즉시 바꾼다고 합니다.

장기저리 기계화 자금 지원 절실

한 희:저는 양계장에서 능력별 급여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분치는 일은 차당 얼마라도 한계가 분명한데 농장에서의 일은 각계군마다 능력이 다르고 계사환경이 달라 이 제도는 현실 여건상 불만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농장에서는 주인이 관리직이고 모두 단순직인데 근로조건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과 같은 처지에서는 종업원을 뺏기지 않으려면 돈을 많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속히 기술개발을 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미국은 밀집사육을 하여 실제로 1수당 계사시설비가 우리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밀

집사육기술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양계업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다같이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농림수산부 당국자와 정치인에게 하고 싶은말은 지금까지는 농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하고 농민을 근본적으로 잘살게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온 형식적인 지원으로는 농촌사회의 발전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력을 기술개발쪽으로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또 양계산업에 대한 제도적 규제조치도 우리의 기술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면 그때는 규제도 가능하나 기술수준이 현재는 원시적인 상태인데 규제할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쉽습니다.

이창진:농기계는 분할상환을 하는데 축산기계도 고가여서 일시불로 지급하기에 벽차고 분할상환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축산기계업종은 조합결성도 없이 각자 업체별로 따로따로 사업을 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성립이되어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기계업자가 자기제품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서 이정도면 농가보급에 장려할 만한-즉 A회사는 급수기, B회사는 건조기 등으로 할 수 있을텐데 이 문제도 재고해 볼만하고 일본은 축산기계 리스협회가 있어 기계회사는 리스회사에서 돈을 받고, 축산농가는 일단 기계를 설치해 놓고 매달 얼마씩 장기간에 걸쳐 리스회사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자금도 정부에서 기금으로 주는데 2차산업은 이자가 높을때 반하여 축산기계는 저리(低利)이기

때문에 현찰로 기계를 살 필요가 없고 특히 정부는 시급한 품목부터 먼저 보급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싼 이자로 일단 기계를 설치해 놓고 양계를 할 수 있는 연구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희:저는 축산기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급이기의 경우 호파식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국내기술 수준으로는 아직 모이를 끌고루 나오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끌고루 나오도 문제점이 있는게 개체마다 필요 급여량이 달라서 남는데는 남고 모자라는데는 모자라 사람이 저어주어야 하는데 모이를 주는 시간보다 오래 걸려 호파식은 아직 우리나라의 계사 구조에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기계는 자동차처럼 정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여력만 있고 개발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국산화 할수 있습니다. 단지 기계업체가 영세하여 자금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책적으로 규제 일변도이니까 양계산업이 발전을 못하여 양계 규모가 적어 기자재 산업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경제단위가 형성되어야 기자재산업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축산업자도 기계화에 대한 의지가 생길 것입니다.

기존 건물에 기계화 문제점 많아

이창진:저희 회사도 기술적인 준비도 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시대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개발비를 투



한 희

**기계화로 1인당
관리수수를
늘리면 보수도
더 줄 수 있다.**

자해서 아직은 시장이 충분치 못해 기계 몇대 팔려고 신제품을 개발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기존 건물에는 그래도 호파식이 경제적입니다. 몇년을 더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기존계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느 한가지를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양계업자의 의지와 정책적인 지원, 기계업체의 개발의지가 복합되어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 농장에서도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도 시급합니다. 지금은 기계가 고장이 나면 간단한 수리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손을 못댑니다. 기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기업에 가 있고 모르는 사람만 있어 오래 쓸수 있는 것도 금방 망가뜨립니다.

송상정:기계전문 인력문제는 1인당 5만수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돈을주고 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인력문제를 타개하려면 완벽한 기계가 나올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할 때를 기다린다면 그때는 양계업은 이미 끝나고 말 것입니다. 값싼 호파식이라도 들여놓고 그 다음에 성능좋은 것으로 들여놓아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결론은 나온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될 규제조치가 풀리고 기술개발로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1인당 관리수수를 높여서 많은 수익을 올리게되면 후생복지에 신경을 쓰고 임금을 최대한 올려주어 종업원들이 양계장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고용노동을 안쓰고 가족노동 형태로 자동화하여 부부가 하든가 하는 결론은 2가지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 국민소득 2,000\$이하에서는 배가고파서 일했지만 지금은 먹고살기위해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점을 생각할때 우선 시급한 것이 기계화를 통한 1인당 관리사육수수를 늘리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양계업자 및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해결이 되어 종업원 구인난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 **양대리**